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 전략에 대한 연구: 역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권향원*

최도림**

본 연구는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경험하는 위기-기회 등의 과업환경 변동에 어떻게 언어적 상징을 통해 대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연례 대국민 공식연설문인 3.1절 기념사와 8·15 경축사를 대상으로 질적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과 양적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으로써 국민의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계속된 정책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위의 정당성(legitimacy)을 어필하기 위한 언어적 상징전략을 의식적으로 구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제도론적 시각에서 소위 제도적 어휘(institutional vocabularies)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정당성의 상징들은 임기 중 경험하는 위기-기회 등 과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찬', '타찬', '인정', 그리고 '전가'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상징의 사용비율은 일반적으로 지지율의 변동과 부(-)의 상관관계의 추세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대통령권력 이론이 대통령의 주요한 권력수단의 하나로 주제화하였던 언어적 상징전략이 사회적 정당성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이해방식과 설명을 질적·분석적 방법론을 통해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주제어: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전략, 질적방법, 제도적 정당성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조직 커뮤니케이션, 조직이론, 및 질적·양적 방법론이다(99blackmonday@hanmail.net).

** 교신저자.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행정윤리, 인사행정, 조직이론 등이다(dmchoi@cnu.ac.kr).

I. 들어가며

대통령은 행정집권권력의 수장이며 가장 주요한 정책결정권자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가치, 태도, 경향, 지향, 행태 등에 대한 관심과 해석은 행정학의 주요한 연구주제를 구성해왔다 (Emrich et al, 2001; 김광웅, 1983; 박성의·이윤지, 2011). 특히 제도주의 조직학 시각에서 국정관리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과업환경으로부터 전략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이론 및 경험적 차원에서 큰 학술적 함의를 지니었다고 할 수 있다 (강민, 1984). 이에 대해 대통령의 실질적 전략옵션으로써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은 아마도 정무직 인사권, 추종자 특혜 등 자원배분의 편이(bias)의 문제나, 물리적 공권력 행사 등의 문제일 것이다 (정정길, 2005). 이러한 전략옵션들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그 함의만을 논의하자면 이들 논의의 근저에는 대통령이 진공 속의 독립적인 행위자가 아닌 다양한 과업환경(task environment) 속에 배태된 사회적 행위자(institutional actor) 라는 사고가 전제되어있다. 대통령은 과업환경이 부가하는 마찰과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배분이나 물리력행사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옵션들은 대통령이 지지 및 성원의 권력적 기반을 확대하고, 행위의 자유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식적 행동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신제도주의적 시각전환을 통해 대통령을 사회적 행위자로 바라보게 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갈래의 연구주제들이 도출된다: 첫째, “어떠한 요소들과 구조가 대통령 국정관리의 과업환경을 구성하고 있고”(김정해, 2003; 유현중, 2009), 둘째, “이들과 대통령 간에는 어떠한 관계적인 특질이 있으며”(최평길 & 백정미, 2005), 끝으로 “대통령은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행태를 보이는가?”(이성로, 2006; 장연수, 2000).

한편 제도적 혹은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대통령이 가지는 주지한 연구주제로써의 풍부함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정학에서 대통령의 행태적 특질에 대한 경험적·분석적 연구는 소홀한 대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정정길, 2005). 이에 대해선 대통령이라는 연구대상이 쉽게 참여와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분석상의 어려움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통령(직)이 가지는 권력적 속성이 대통령을 매우 중요하나 다루기 어려운 대상으로 심화하고 있는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행정학의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대통령 개인’의 미시적인 가치, 태도, 경향, 지향 및 행태에 대한 이해보다는 ‘대통령직’의 권력적, 제도적, 구조적, 역사적 성격에 대한 다소 거시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김정해, 2003). 즉, ‘제도로써 대통령’이 ‘행위자로서 대통령’ 보다 용이하게 연구대상으로써 주제화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그 자체’가 아닌, ‘대통령의 텍스트(말과 글)’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가치, 태도, 경향, 지향 등을 읽어내려고 하는 연구가 관심을 받게 되면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경험연구가 보다 높은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행정조직에 대한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와 ‘질적-해석학적 연구’(윤건수, 2005)가 행정학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행정-조직학적 시각에서 대통령 개인의 행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게 된 것이다. 이미 정치학과 미디어학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대통령 수사학(presidential rhetoric)’이 소위 ‘대통령텍스트’ 연구에 대한 경험연구의 체계를 이루어왔고, 또 방법론에 대한 틀을 구성해왔다 (Campbell & Jamieson, 1990; Cohen, 1995).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넓혀놓은 이해의 지평에 있어서 행정-조직학적 의미에서의 이해의 사각지대는 아직 존재한다. 특히 언급했던 ‘제도적 행위자’로써 정당성의 이미지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대통령의 의식적 상징전략 등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대통령 수사학의 연구경향에서 발견되지 않는 지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대통령 개인에 수렴된 심리, 개성, 습관, 제의 등 심리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Lim, 2002).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연구들은 다소의 레적이고 제레적인 상징정치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박성희, 2009; 박성희 & 이윤지, 2011), 문체론적 혹은 태도론적 해석에 주력하거나 (이정복, 2003), 개인의 가치정향 혹은 철학 등에 대한 추론에 몰입하는 등의 경향성을 보인다 (김현국, 2001). 결국 행정학의 연구테마인 제도와 권력에 상관한 대통령의 상징 행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이해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Drukman & Holmes, 2004).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신제도적이론(neo-institutionalism) 시각의 사회적

기대와 압력아래 서 있는 ‘제도적 행위자로서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통령 수사학적 시각에서의 ‘텍스트를 통한 대통령의 심리와 행위 읽기’를 통해 기존 행정학 연구의 시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주지한 바대로 이 관점에서 대통령은 기존 행정학 연구들이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제도 그 자체’ 보다, 과업환경을 구성하는 국민 등의 기대, 요구, 성원, 지지에 선택을 제한받는 ‘제도 속 행위자’로 그려 진다 (Scott, 2008; Scott & Alford, 1991). 그렇다면, 조직관리이론에서 말하는 제도적 정당성(legitimacy)을 달성하기 위한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와 상징관리(symbolic management)의 설명방식을 대통령의 심리와 행태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할 실익을 추론해낼 수 있다 (Suchman, 1995; Schlenker, 1980). 가령, 대통령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성원은 정책추진력과 정권재창출이라는 면에서 민감한 관심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설득과 정당화라는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행위를 통해 제도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추구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제도적 성원과 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과업적 상황변동은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사용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 수사학이 제공하는 텍스트 분석은 이러한 설득과 정당화의 ‘언어상징 전략의 특질’(Elsbach, 1994)에 대한 이해의 엄밀성과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상에서 본 연구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과 이에 따른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 전략의 특질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문제는 “어떻게 역대 14~17대 대통령들이 사회적 정당성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적 상징을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통령 간의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특질은 어떠한 것인가?”로 설정하였다. 방법론차원에서는 질적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대통령 언어 상징전략의 패턴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지지율 변동 등 지표화 된 국민의 지지 및 성원에 대한 자료와 발견된 상징전략의 유형별 비율과의 상관성을 양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상징전략의 추세적 패턴 및 특질 역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사회적 정당성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과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어서 상징의 정치적 사용이라는 기존의 이론적 시각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분석방법론과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겠다.

II.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전략

1. 행정·정치권력의 상징사용의 기존시각: 상징정치와 대통령수사학

언어적 상징의 기능성을 행정·정치권력의 작동차원에서 이해한 관점의 시초는 에델만(Edelman)의 상징정치(symbolic politics)에서 찾아볼 수 있다 (Edelman, M., 1971; Edelman, L.B., 1992). 이 관점에 따르면, 정치·행정 권력은 언어적 상징(symbols)의 전략적이고 대중적인(populist)인 사용을 통해 대중에게 문제, 대안, 평가 등의 의미요소들을 정권이 원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구성, 재구성, 전달한다고 한다. 즉, 에델만은 정권의 작동을 상징적이고, 언어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정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중의 선호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적 도구가 언어적인 상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정길, 2003).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적 규제, 물리력의 발동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적 상징은 가장 저비용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에 호소하고 은밀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이점을 가진다. 특히 대중은 일반적으로 정책문제에 대한 부족하고 선별된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 정책문제, 대안, 평가 등에 대해 타당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Arias, 2008; Thomas, Clark, & Chittipeddi, 1994). 따라서 대중이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보이는 관심의 사이클은 실제로는 권력이 제공하는 프레임(frame)에 유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운즈(Anthony Downs)는 이슈의 관심주기(issue attention cycle)라는 개념을 통해 대중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주기는 자연적인 순환과정을 통해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기획과 전략에 의해 의식적으로 유도되는 것으로 보았

다 (Herman & Chomsky, 2002).

특히 대통령은 다른 관료집단에 비해 연설, 담화, 대화 등 대중적인 수단을 통해 언어를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자유도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최평길 & 백정미, 2005).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기구로써의 법적인 성격과 더불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한 정체(polity)의 가치지향과 시각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한 국가의 국민이 공통으로 나누고 있는 정체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기반과 기능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상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에 대통령은 대중에게 가지적인 연설 혹은 순방 등 미디어를 통한 현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징수행자로써의 대통령의 중요성 때문에, 대통령의 상징사용에 대한 연구는 이미 ‘대통령 수사학(presidential rhetoric)’이라는 주제로 일가의 경향을 이루어왔다 (Campbell & Jamieson, 1990; Cohen, 1995). 대통령 수사학은 대통령이 구사하는 상징의 해석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통령이 어떠한 가치, 의도, 문제정의 그리고 대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허재용·엄기홍, 2012). 이를 통해 특히 대통령의 행태 및 발화를 통해 대통령이 특정 이슈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태도’나 ‘해석’을 읽어내는 데에 주목한다 (유현중, 2007).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 수사학 연구는 언어를 통해 주체의 의식을 읽어내려는 해석적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Cohen, 1995; Gioia et al, 1994). 이러한 연구들은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는 ‘문제상황’ 혹은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 가지 입체적인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대통령 수사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산출해내는 언어적 상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이는 에델만의 상징정치와 조응하는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대중의 의식을 구성하기 위해 언어적 상징을 전략적으로 동원하는 경우 언어의 기능적 측면이 중요한 주제로 표면화된다 (Tucker, 1998). 그러나 상징정치의 개념은 비판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인용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다 (Chomsky & Herman, 1998). 권력의 상징을 통한 프로파간다와 대중의 식의 수동성과 객체성은 권력의 은밀한 작동이라는 비판사회과학의 시각과 공명하는 점이 크기 때문이다 (Coleman, 1998; Steffy & Grimes, 1986). 과거 나치독

일이 동원체제를 공고이하기 위해 민족주의의 프로파간다를 통해 전체주의를 공고히 하였던 점이나, 과거 냉전시대의 국가들이 이데올로기적 상징을 통해 내부적 가치의 결속을 도모하였던 점에서 상징정치는 비판적 시각에 좀 더 조용하는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Elder, 1983; Cooper, 2004). 그러나 상징정치의 기능적 측면을 단순히 지배-피지배의 대립항간의 권력적 작용만으로 한정하여 보기에는 현대에 이르러 상징의 기능적 활용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진다. 가령, 상징관리(symbolic management)의 시각에서 상징은 조직 내의 소속감이나 정체감을 고취하는 기능성을 가지거나, 조직의 외부청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환기하는 등 마케팅적 기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Fiss & Zajac, 2006). 이러한 관리적 시각이 대통령의 상징 사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정치학적 관점인 상징정치와 조직학적 관점인 상징관리의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다.

2. 행정학적 상징관리의 시각전환: 제도적 행위자로서의 대통령과 상징관리

상징정치가 권력의 대중에 대한 공세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대통령 수사학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해석적 독해에 주력하고 있다면, 상징관리(symbolic management)는 보다 조직학적 관점에서 상징의 조직관리에서의 기능적 측면을 주제화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상징관리 시각은 대통령을 과업환경이 부가하는 기대, 성원, 반대, 적대 등의 제도적 압력아래서 활동하는 관리자의 이미지로 바라본다. 즉, 상징정치의 도식인 지배-피지배의 대립항에서 상층에 서있는 ‘공세적 권력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조직-과업환경의 내포항에서 내부에 서있는 ‘수세적 관리자’의 상으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전환은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행정조직을 분석하는 연구경향의 주제 의식과 공명하는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Frumkin & Galaskiewicz, 2004), 이 경우 제도적 행위자로서 대통령이 제도적 환경이 부여하는 압력과 기대에 대응하여 어떻게 정당성(legitimacy)의 이미지를 구성해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즉, 정권이 화자로서 대중 및 이익공동체 등과 같은 청자들에게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상징소통을 수행할 것이 예상된다면,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과 형태의 상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문제가 새로 도출되게 되는 것이다. 이 지점이 대통령의 상징에 대한 연구를 정치학적 수사학적 시각과 구분되게 재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보다 타당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 신제도주의적 시각은 제도적 환경속의 행위자의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행태에 대한 상을 주제로 삼지 않았다(Lounsbury, 2007). 이 관점에서 제도적 행위자는 주어진 제도적 환경에 무조건 순응하는 수동적(passive) 행위자로 그려진다. 마치 자연선택론의 논리에서처럼 행위자들이 제도적 환경에 순응하여 사회적 생존과 번영의 기회를 높이려고 하는 적응자로 받아들여진다. 이 관점에 주된 연구관심은 특정 제도의 확산(diffusion)과 같은 행위자들의 순응 매커니즘과 패턴에 관한 주제에 주로 놓이게 된다. 한편, 최근의 신제도주의는 제도적 행

<표 1> 올리버(Oliver)의 제도에 대한 행위자의 대응전략 유형

전략	행태	설명
순응 (Acquiesce)	습성(Habit)	제도적 규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따름
	모방(Imitate)	제도적 규칙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모방함
	따름(Comply)	제도적 규칙을 따름
절충 (Compromise)	균형(Balance)	다양한 제도적 압력 사이들에서 균형점을 찾음
	달랠(Pacify)	제도적 압력의 행사자들을 유화적으로 달랠
	거래(Bargain)	제도적 압력의 행사자들과 거래를 이룸
회피 (Avoid)	숨김(Conceal)	제도에 순응하는 듯 가장함 -실제로는 순응하지 않음-
	완충(Buffer)	제도의 영향권으로부터 거리를 둠 -그러나 그 안에 머무름 -
	탈출(Escape)	제도의 영향권으로부터 탈출함
도전 (Defy)	기각(Dismiss)	제도적 규칙을 무시함
	도전(Challenge)	제도적 규칙에 도전함
	공격(Attack)	제도적 규칙의 행사자들이 공격함
조작 (Manipulate)	흡수(Co-opt)	영향력있는 영향권자를 흡수함
	영향(Influence)	스스로 제도적 영향권자가 됨
	통제(Control)	제도적 영향권자와 제도적 과정을 통제하는 권력을 갖음

(Oliver, 1991: 152)

위자에 대한 이러한 우화적이고, 과대사회화된(over-socialized) 비현실적인 가정에 비판을 제기하고, 제도적 환경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지에 대한 부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리버 (Oliver, 1991)는 제도적 행위자는 주어진 제도적 환경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 절충, 회피, 도전, 그리고 심지어 조작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식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행위자는 체스의 말이 아닌, 게임플레이어(game player)로 재인식된다.

제도론에서의 이러한 관점 전환은 정권의 언어적 상징전략에 대해 분석에 이론적 타당성과 입체감을 더한다. 대통령 역시 제도적 행위자로서 다양한 제도적 변동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대통령이 특정한 잘못이나 위기에 직면하여 사회적인 정당성을 침해받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 행위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비난을 감수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적 상징을 통해 이러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식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가령,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김으로써 임을 회피하거나 (Jost, 1995), 다른 이슈를 동원하여 책임상황으로부터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Ocasio, 1997), 혹은 책임상황의 불가피성에 대한 타당한 이유들을 제시하여 정당화논리를 제시하는 (Ashforth & Gibbs, 1990; Elsbach & Sutton, 1992)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에 대한 연구들은 언어의 정교한(delicate) 전략의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주지한 바대로 상호관계라는 ‘게임상황’(Astley & Zammuto, 1992)에서 제도적 행위자로서 대통령은 좀 더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의도에서 언어적 상징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대통령의 ‘말’이라는 언어적 상징활동은 고도의 정치적인 활동이다 (이창수, 2008; Campbell & Jamieson, 1990). 대통령은 사회각부문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기대/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고도의 공적/상징적 가시성 때문에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구속의 심리적 유리장 안에서 활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Frumkin & Galaskiewicz, 2004). 따라서,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적 상징은 대통령의 정책적/정치적 행위에 사회적 정당성(legitimacy)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써 ‘제도적 어휘(institutional vocabularies)’가 배태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Gioia & Thomas,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엄밀하고 구조화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3. 연구문제: 과업환경의 변동과 언어적 상징을 통한 대응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재직기간 동안 다양한 과업환경의 변동에 직면할 수 있다. 재직기간동안 정권의 가시적인 잘못으로 사회적 비난과 질책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정권의 가시적인 성과로 인하여 사회적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지지율이라는 지표로 구체화되어 드러나는 이러한 변동에 대응하여 (박기묵, 2011),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하여 대통령은 이를 타개해나가기 위하여 의식적-주도적으로 언어적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국민의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필연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는 정책의 추진력이라는 측면에서, 또 차기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힘/압력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가상준, 2005; 김용복, 2008; 안순철 & 가상준, 2006).

이제까지의 논의를 이론적 자원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과업환경의 변동에 대하여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언어적 상징을 동원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특히, 정권의 가시적인 성과와 잘못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어떠한 “제도적 어휘들(institutional vocabularies)”을 동원하여 전략적으로 성과를 부각하고, 잘못을 회피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상징사용에 있어서 전직 14~17대 대통령 간의 공통적 혹은 특징적 패턴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편, 실무적 시점에서 대통령의 상징사용이 언어적 측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어적 상징이 발화되는 ‘장소의 설정(set-up)’이나 대통령의 외형적 스타일이나 언술적 태도 등의 비언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말’이라는 대상은 한 개인으로서 대통령의 독자적인 산물이라기보다는 보좌진들과의 종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경우역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이러한 비언어적 상징적 요소들은 일단 통제해두고, 대통령의 ‘말’이라는

언어적 상징으로만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행하는 모든 상징적 제스처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석의 편의와 무엇보다도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의 자율적·독자적 산물로만 보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의 초점은 대통령 개인의 의식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권력의 집합적 의식을 대변하는 채널로서의 대통령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논리의 타당성이 크게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Ⅲ. 데이터 및 방법론

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대통령이 3.1절과 8·15의 공식행사에서 미디어를 통해 현시했던 연례공식연설문을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대통령의 공식 언어에 대한 분석 텍스트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연구들은 기념연설문집의 시기별 연설문의 모음을 통해 대통령의 정책인식에 대한 시기의 연속성과 이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거나 (장연수, 2000), 취임사 연설문을 분석하거나 (김현국, 2001), TV나 라디오 등 대중미디어에서의 토론 등의 녹취자료를 활용하거나 (박성희, 2009), 외교행사에서 낭독한 연설문을 분석하거나 (이정복, 2003) 또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분석하거나 (김광웅, 1983)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텍스트는 대통령의 문제해석과 의식지향을 읽어내기 위한 자료로써 좋은 소스(source)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시간의 연속성과 변화를 감안한 대통령의 상징관리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회적이거나 비정시적인 연설문은 분석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미디어 토론이나 외교행사 연설문 등은 적합하지 않다. 한편, ‘연간’ 시정연설은 정규성/정시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간극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허재용·엄기홍, 2012:45). 기념연설문집의 활용은 복수의 대통령들 연설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비교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3.1절 기념사’와 ‘8.15 경축사’를 분석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 두 연설문은 3.1절과 8.15광복절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행해지는 공식연설로 강한 정규성과 정시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이를 통해 대일관계와 북한문제와 결부하여 당해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의 정권 자체 평가와 정책 이슈 제시를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목적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설은 TV와 라디오의 주요 공중파 채널로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국정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설문의 작성 및 낭독은 고도의 의식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적인 환경변화로는 (1) ‘정권의 실책과 성과’, 그리고 (2) ‘지지율의 변동’을 고려하였다.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사회적 지지와 성원은 정책결정과 권력작동의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주의적 시각은 국민은 정부에 있어서 주요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이며, 정부의 작동에 기대-압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적 환경으로 이해한다 (Freeman, 1984; Frumkin & Galaskiewicz, 2004). 특히 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정부권력의 재창출이라는 정치적인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이라고 표현되는 국민의 의식과 반응에 민감도가 높다 (Stone & Schaffner, 1988). 정부권력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의 기대/압력의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고도의 정치적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가장 가시성이 높은 정권의 상징이자, 대표 명사(celebrity)로서 대통령의 ‘말’은 제도적 환경인 국민에 대응하는 미디어(media)로써 제도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의 실책과 성과’나 ‘지지율의 변동’과 같은 제도적 부담과 압력의 상대치가 변동할 수 있는 과업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대통령의 ‘말’이 가지는 정치적/전략적 중대성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의 ‘말’이 대중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러한 중대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1993~1997),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1998~2002),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2003~2007), 그리고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2008~2012)이다. 제14대에서 17대까지의 4명의 전직대통령을 분석대상

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민주화이후 대중민주주의를 통해 선출된 민간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역시 민간출신 대통령이나, 본 연구가 수행된 시기인 2013년 현재 재임초기이므로, 대중미디어를 통한 대중연설의 횟수가 매우 적고, 연도별 연속성을 아직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중민주주의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권위주의 정부의 대통령에 비해 사회적 기대, 요구 및 압력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제도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의 전략적 사용 측면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들이나 비민간인 출신 대통령의 공식 연설은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의 언어적 상징은 제도적 환경에 대응한 민감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료의 출처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¹⁾의 아카이브(archive)이다. 해당 아카이브는 역대 대통령들의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임사를 비롯한 각종 공식연설의 녹취자료들을 역시 포함된다.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 추후 누락된 자료나 부족한 텍스트 자료는 대통령 문집이나 기타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녹취자료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3.1절 기념사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의 1993년 74주년 기념사를 시작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93주년 기념사에 이르기까지 20회의 기념사 동안 약 15,470개의 단어로 구조화된 연설문 텍스트가 자료화되었다. 8.15 경축사의 경우, 1993년 48주년 경축사를 시작으로 2012년 67주년 경축사에 이르기까지 약 30,420개의 단어로 구조화된 연설문 텍스트가 자료화되었다. 8.15 경축사가 3.1절 기념사에 비해 약 2배 많은 단어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 자료에 대해 연두기자회견이나 시정연설문 등의 대안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의 실익이 있으나, 자료취득의 어려움과 표준화의 미흡성 등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대상 자료에서는 배제하였다.

1)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

2. 분석방법론: 질적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과 양적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을 유기적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우선, 질적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에 내재되어 있는 ‘정권의 인식된 실책 및 성과에 대한 정당화’를 중심주제로 정하고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통적이고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유형화하고 이를 구조화하였다. 질적 주제분석은 질적자료를 문제중심으로 접근하는 근거이론의 시각에서 (권향원 & 최도림, 2011), 연구자가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포괄도를 달성한 후, 중심 주제에 관련된 개념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 등의 단위(unit)를 면밀하게 비교하면서 코딩(coding)을 통해 구조화하는 방법론이다 (이미옥 & 하양숙, 2011; Braun & Clarke, 2006). 이는 텍스트 속에 내재된 중심주제에 관련된 개념들을 탐색하고, 이를 구조화 및 조직화함으로써 중요하나 아직 이해되지 않은 주제에 대한 이론화의 시론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진다. 질적 주제분석은 컴퓨터 프로그램인 Atlas.ti v7.0 (build 88)을 통해 수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로 하여금 텍스트 자료를 코딩(coding)을 통해 유형화 혹은 이론화하거나, 코딩된 정보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본 프로그램의 코딩(coding)과 라벨(label) 기능을 통해 대통령이 인식한 정권의 ‘실책’에 대한 ‘책임회피’나 ‘성과’에 ‘신망부각’에 해당하는 문장을 탐색하여 라벨을 부여하고 코딩하였다. 수집된 코드들은 유사한 의미끼리 그룹화하고 유형화 및 조직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 및 조직화는 대통령들이 인식된 ‘실책’과 ‘성과’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언어적 상징전략의 일반 패턴을 구조화된 이론의 형태로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권향원 & 최도림, 2011). 유형화 및 조직화된 유사코드들의 군에 라벨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의적인 명명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기존 조직이론과의 단절과 일반화 상실을 막기 위해서, 귀추법(abduction)²⁾의 시각에서 분석결과를 참조해서 기존의 언어적 상

2) 귀추법은 퍼스(Peirce)에 의해 제안된 지식확장에 있어서의 논리적 접근방법이다. 귀추법은 귀납법이나 연역법이 전제하는 ‘이론→경험’ 혹은 ‘경험→이론’의 결정적·일방향적인 가정을 완화하고, 좀 더 엄밀한 논리적 분석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연구자는 ‘이

징과 전략에 대한 유사 혹은 다른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학습하고 이론적 이해도를 높인후, 이에 근거하여 라벨을 부여하였다 (Holton, 2007). 분석과정에서 질적 분석이 가지는 주관성과 상대성의 오류를 통제하기 위해서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을 수행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상호신뢰성검정(intercoder reliability test) 을 실시하였고 (Cronbach, 1990:191), 상대적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Cronbach $\alpha = 0.78$).

질적 주제분석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양적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이는 분석자료인 연례 대통령 연설의 텍스트 자료를 대상으로 주제분석의 결과 파악된 언어적 상징전략의 유형들을 배태한 문장들이 텍스트 자료 내에서 어떠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행한 질적 주제분석이 대통령들의 언어적 상징 사용에 있어서 행태의 일반적인 패턴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후행하는 양적 내용분석은 이러한 행태적 유형들의 대통령간 또는 시기간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와 특질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분석단위는 ‘문장’으로 텍스트 내의 ‘문장들’ 중에서 분석의 대상인 ‘제도적인 어휘’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들의 수를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제도적인 어휘’를 포함한 문장이란 질적 주제분석의 코딩과정에서 탐색된 문장들을 의미한다. 이미 주제분석의 과정에서 제도적인 어휘가 포함된 문장이 추출되고, 라벨로 북마크 되어 있기 때문에 양적 내용분석은 이들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수를 측정하고, 이들 단어수와 전체 연설문을 구성하는 단어 수의 비율을 아울러 측정하였다. 이러한 양적이고 표준화된 지표는 전체 연설문에서 제도적인 어휘를 포함하는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의 대통령간 그리고 시기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한다 (김경동, 1995). 양적분석의 시기간 비교에 있어서는 지지율 변동과의 상관성도 아울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지율과 특정한 상징전략의 선택여부 및 비율에 어떠한 함수적 패턴이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통령 간 혹

론’이나 ‘경험’을 하나의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론과 경험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고가며 이론의 엄밀성과 경험의 이해도가 충분히(saturated) 질 때까지 학습을 수행해야한다고 한다. 귀추법은 과학적·논리적 사고의 정당성은 이러한 과정적인 측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언명한다 (Reichertz, 2007).

은 시기 간 비교에 있어서 양적 분석은 일정한 약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단어 수나 표현 빈도 등을 통해 복수의 대통령을 비교하는 경우 개별 대통령이 가지는 경향 및 습관에 의해 결과치 해석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통령은 연설에 있어서 다른 대통령에 비해 많은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단순 빈도분석을 통해 단어수와 문장수를 합산한 후 대통령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많은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대통령의 분석결과치가 과대하게 해석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산의 절대지표가 아닌, 비율지표를 사용하였다. 가령, 대통령이 구사한 연설문의 내용 중, 단순한 사실전달이나 제의적·의례적 내용이 아닌 정치적·상징적 목적이 담겨있다고 판단된 문장을 추출하고,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수의 전체 연설문을 구성하는 단어 수와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단어’는 화자의 말 습관에 따라 반복·중복의 편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문장’이 좀 더 적합한 분석단위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3.1절과 8.15라는 특수한 의례를 기념하는 기념연설의 경우 연설문의 내용이 일정부분 상투적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어휘의 빈도 및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빈도 대신 비율을 지표로 사용할 경우 결국 상대적인 비율을 통한 상호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투적인 문장의 효과가 분석결과 해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비율을 통한 내용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디자인(research design)은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을 순차적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선행하는 질적분석을 통해 개념을 발견(explore)하고, 그 개념을 다시 양적인 분석을 위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복합방법디자인(mixed methods design) 중 연속적-발견적(sequential-exploratory) 디자인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reswell & Clark, 2007). 이러한 복합구조의 방법론적 구조는 연구의 엄밀함과 설명력의 풍부함을 높이고자 의도된 것이다.

IV. 경험적 분석결과

14대 ~ 17대 역대 대통령 3.1절 기념사와 8.15 경축사의 기술적인 통계량은 아래 제시한 표와 같다. 모든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8.15 경축사에 3.1절 기념사와 비교하여 약 2배의 단어를 구사하였고, 이러한 분량의 배분은 두 연설문에 공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데이터상의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77주년 3.1절 기념사의 경우엔 국가기록원 서버상의 내부오류로 인해 자료를 취득할 수 없었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77주년 기념사의 경우엔 녹취된 연설문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모든 기념사의 녹취자료는 표준화를 위해 경어로 통일하였다.

<표 2> 대통령별 ‘3.1절 기념사’ 와 ‘8.15 경축사’의 전체 단어 수

대통령	연도	3.1절 기념주년	전체 단어수	8.15 기념주년	전체 단어수
김영삼 (14대)	1993	74주년	498	48주년	669
	1994	75주년	527	49주년	1,094
	1995	76주년	733	50주년	1,065
	1996	77주년	-	51주년	1,084
	1997	78주년	634	52주년	806
		평균	= 598	평균	= 944
김대중 (15대)	1998	79주년	991	53주년	1,829
	1999	80주년	1,017	54주년	1,794
	2000	81주년	1,651	55주년	1,864
	2001	82주년	388	56주년	1,689
	2002	83주년	842	57주년	1,623
		평균	= 978	평균	= 1,760
노무현 (16대)	2003	84주년	710	58주년	1,528
	2004	85주년	1,143	59주년	1,794
	2005	86주년	724	60주년	1,851
	2006	87주년	452	61주년	1,366
	2007	88주년	615	62주년	1,450
		평균	= 729	평균	= 1,598
이명박 (17대)	2008	89주년	529	63주년	2,040
	2009	90주년	893	64주년	1,849
	2010	91주년	1,303	65주년	1,456
	2011	92주년	822	66주년	1,769
	2012	93주년	998	67주년	1,800
		평균	= 909	평균	= 1,783

한편, 테마분석(thematic analysis)을 위해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포화도’를 높인 후 이해하게 된 점은 두 연설문이 내러티브상 유사한 서사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3.1절과 8.15 광복절 모두가 “억압/제약/굴레”로부터의 “극복과 재도약”이라는 영웅적 성장담의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연설문은 “과거 국난의 민족적 극복에 대한 경하” → “현재까지 국가적 성과에 대한 치하” → “정책/국정 현황에 대한 자체적 평가” → “미래에 대한 비전과 아젠다의 제시”라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연설문 모두가 “과거 → 현재 →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적 상승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서 해당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상황’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모든 대통령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내러티브 구조상 특이점 중의 하나는 ‘3.1절 기념사’는 대일관계와 외교정책에 대한 시각 및 인식을 주로 내포하고 있는 반면, ‘8.15 경축사’는 대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및 인식을 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대북 문제가 대일문제에 비해 좀 더 직접적이고 시급한 정책적 목표라는 점이 8.15 경축사에 포함된 전체 단어수가 3.1절 기념사의 그 것에 비해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약 2배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내러티브적 구조성은 연구의 초기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구조적 특수성이 분석의 결과치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령, ‘과거 국난의 민족적 극복에 대한 상투적·의례적 경하’를 국민에 대한 정치적·상징적 제스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의 모습은 분석의 대상으로 대상화하지 않았다.

1. 테마분석: 대통령 언어적 상징전략의 유형

테마분석 결과 대통령이 집권기간 동안 직면하게 되는 ‘위기/도전’과 ‘성과/기회’에 대하여 예상되는 ‘위기/도전의 상황’에서는 예상되는 정당성의 침식을 최소화하고,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동원하는 다양한 언어적 상징의 유형들이 확인

되었다. 초기에는 기존 이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통령이 ‘위기/도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만 언어적 상징을 구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테마분석을 위해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포화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성과/기회의 상황’에서 정권의 신망을 높이기 위한 언어적 상징 역시 구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기존 ‘비난회피’ 이론의 연구경향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 전략에서는 조직 관리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 전략과 유사한 속성이 발견된다. 즉 조직외부의 청자에게 언어적 상징을 통해 좋은 이미지(image)를 전달함으로써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으로서 이해당사자(stakeholders) 혹은 국민들의 조직의 활동과 정당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하는 의도성이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테마분석의 결과 도출된 과업환경 변동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상징전략의 유형을 표로 나타낸 것은 아래와 같다.

테마분석의 결과 문제-성과의 환경변화에 대해 대통령(화자)이 그 탓 혹은 덕의 소재를 누구로 돌리고 있는가에 따라 분석의 결과는 일종의 2×2의 사건테이블(contingency table)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상관리의 조직이론이 말하는 ‘전가’ 전략이 대통령의 상징정치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3> 과업환경변동(성과와 문제) 대응의 상징전략 유형

		원인의 소재	
		자신	상대
과업환경변동 에 대한 대응	성과	자찬	타찬
	문제	인정	전가

분석의 결과는 과업환경의 변동에 있어서 가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은 언어적 상징을 동원하여 그 원인의 소재를 상대에게 돌리려고 하는 전략

적 모습을 보인다. 이는 사회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비난회피(blame-avoidance)의 기재의 한 형태로써, 대통령은 언어적 상징을 통해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책임의 분할(responsibility allocation)을 피한다 (Weick, 1993). 이러한 소위 ‘전가’ 전략은 문제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자신’을 배제시킴으로써 비의식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비난회피의 한 형태로써 ‘전가’ 전략을 관찰하였다면, 비난에 맞서는 전략으로써 ‘인정’의 상징도 관찰되었다. 빈도와 비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원인으로 ‘자신’을 두고, ‘정직’과 ‘용기’의 시그널을 동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상징 전략으로 판단된다. 반면, 과업환경의 변동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은 언어적 상징을 동원하여 그 공을 상대에게 부여함으로써 상대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전략적인 모습이 관찰된다. 이를 ‘제도적 겸손’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인데, 대통령은 다양한 정권의 성과에 대하여 ‘국민의 덕’, ‘감사’, ‘친애’, ‘경애’ 등의 수사를 통해 성과를 상대 -여기서는 주로 국민-에게 나눠주는 제스처(gesture)를 보인다. 이와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하여 오히려 권력이 스스로의 공을 인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데, 이러한 소위 ‘제도적 자찬’은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 상징전략의 한 유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적인 유형에 대한 설명과 예시적 발췌(excerpt)는 아래와 같다.

1) 유형 1. 자찬: 성과의 덕을 자신에게 돌림 (credit-giving to self)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는 경우 ‘제도적인 자찬’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성과의 덕을 자신에게 돌리는 전략이 발견된다. 성과에 있어서 집권권력의 ‘독립변수성’을 강조하기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징전략이며, 특정한 정책슬로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현재에 발견되는 가시적인 성과와 특정한 정책슬로건의 인과성을 암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제도적 자찬’ 전략은 업적의 경쟁자로서 지난 정권과의 비교의 기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정권 당시의 성과지표와 현 정권의 지표를 구분·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단절적 변

화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상징적 의도가 엿보인다. 어떤 경우, 현 정권이 지금의 성과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명시함으로써 결과-원인의 인과적 선명성을 구체화하려는 상징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지난 2년, 문민정부는 기미독립운동의 정신과 선열들의 이상에 충실한 나라를 만들고자 개혁에 매진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나라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활력과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저의 대통령 당선 당시 불과 39억 달러에서 이제 800억 달러가 되어 OECD 선진 29개국 중 일본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채권국가 중에 한국이 들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꿈도 못 꾸었던 변화를 이룩한 것입니다.”

“지난 2009년 경제 위기 때 신년 초부터 정부는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 유형 2. 타찬: 성과의 덕을 상대에게 돌림 (credit-giving to the other)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는 경우 ‘제도적인 겸손’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성과의 덕을 상대에게 돌리는 전략이 발견된다. 그 상대는 정치적 유권자이자 정책적 지지자인 국민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민의 저력’, ‘여러분의 덕’, ‘여러분의 탓’, ‘감사’, ‘찬양’, ‘경애’ 등의 존경어를 통해 구사되며, 해당시기의 가시적인 성과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자신을 제외한 특정한 대상에게 돌리는 형태로 성과의 덕을 배분한다. 이는 인상관리의 기존 이론에서 비난회피의 전략으로 책임의 배분 (responsibility allocation)이라는 설명이 해당하는 역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상징전략의 화자는 단순히 비난의 책임만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업적의 덕 역시 상대에게 배분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외부의 청자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물가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안정되었고, 금년에는 소비자물가가 3%대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작년 89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1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결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은 일제히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피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3, 1 구국정신의 위대한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군은 군의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효과적이고도 충실하게 이행해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만일 승리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국군에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화합의 바이러스’가 서서히 그러나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노사민정이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나누기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희망을 말어 아닌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아니라 민간 주도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 유형 3. 인정: 문제의 탓을 자신에게 돌림 (admittance)

문제의 탓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인정(admittance)’이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태를 통해 일정부분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대통령이 구사하는 언어적 상징의 경우 인정의 전략을 구사하는 사례의 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인정의 전략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부문의 집권권력에 대한 신뢰의 감소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리적인 ‘안심’의 상징이 추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안심 상징’의 형태로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지’와 ‘정부의 노력’이라는 메시지가 주로 관찰되는 데, 이들은 인정의 전략의 부영향을 완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종의 쿠션(buffer)같은 역할을 하는 수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일협정과 피해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국교정상화 자체는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국교를 단절하고 지낼 수도 없고, 우리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킬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로서는 국가가 국민개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실업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유형 4. 전가: 문제의 탓을 타인에게 돌림 (blame-imposing)

마지막 유형은 특정한 외부적 문제, 위기, 도전 등의 상황을 인지시키고, 그 상황의 의미구성(sense-making) 하는 과정에서 화자(대통령)을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문제, 위기, 도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관심(attention)을 유도하는 언어적 상징전략이다. 이는 공동의 상징적 적을 표상하거나, 공동의 문제를 의식의 지평위로 설정함으로써 조직내부의 하나 됨(oneness)을 유도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부의 이해당사자들이 조직에 대해 투사하는 제도적인 기대/요구 등의 압력을 중화하려는 상징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Benford, 1997). 혹은 화자의 업무환경에서 부각되는 다양한 도전에 대한 응대로써 시선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도전에 대한 우회를 피하는 상징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조직의 리더가 의미구성(sense-making)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현 상황이 공동의 문제임을 부각시켜 조직구성원들이 순응을 유도(compliance inducing)하는 상징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를 유사한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고 해도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는 러일전쟁 당시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날을 기념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난날의 과오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나아가서는 역사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와 행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른바 몇몇 '권력기관'은 그동안 정권을 위해 봉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2. 내용분석: 지지율과 제도적 어휘 사용비율의 관계성

선행한 테마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양적내용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구사의 특질을 시기별로 분석 및 비교하여 보았다. 분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테마분석의 결과 발견한 언어적 상징전략의 옵션들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대통령들에게 일반적인 패턴이 발견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대통령 공식 연설에서 차지하는 제도적 어휘의 비율이 시기별로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테마분석의 결과 발견된 언어적 상징전략의 옵션들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대통령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발견되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 간에 선호하는 상징전략의 유형과 비율의 차이가 발견된다면, 대통령 각자의 상징사용에 있어서 행태적 경향의 차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장은 양적내용분석을 통해 전임 대통령들이 구사하는 언어적 상징전략 행태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1) 발견 1. 대통령 상징전략 사용의 유형 및 패턴

대통령들의 상징전략에 있어서 일반성 혹은 유사성을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양적내용분석을 대통령의 임기연도별로 개별적으로 시행하였다. 즉, 임기연도별 3.1절 기념사와 8.15경축사에 대한 양적내용분석을 통해 각각의 임기연도별 언어적 상징전략의 사용비율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3.1절 기념사’와 ‘8.15 경축사’가 가지는 식순에 따른 ‘일정한 연설시간’이라는 시간적 ‘표준성’과

특정한 시기에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정시성’이라는 조건에 따라, 대통령 간의 연도별 양적비교에 있어서 그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연설이 가지는 ‘고도의 정치성’을 고려할 때 (김광웅, 1983), 대통령 기념사나 경축사가 단순한 제의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식지향과 가치순위가 반영될 수 있음을 전제할 수 있었다. 연설문에서 차지하는 언어적 상징전략의 활용 비율이라는 통계량은 따라서 대통령이 언어적 상징 전략에 대해 가지는 ‘필요’에 대한 지표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행한 테마분석결과에 기반한 양적내용분석의 결과치는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4> 역대 대통령 재임 연도별 제도적 어휘 사용 비율 (유형별)

	전략유형	제도적 어휘의 사용 비율 (%)					평균
		재임1년	재임2년	재임3년	재임4년	재임5년	
김영삼	자찬		0.04	0.05	-	0.21	0.08
	타찬						
	인정						
	전가	0.03					
	누계	0.03	0.04	0.05	-	0.21	
김대중	자찬						0.15
	타찬	0.39	0.14	0.14	0.10	0.04	
	인정						
	전가						
	누계	0.39	0.14	0.14	0.10	0.04	
노무현	자찬	0.08	0.05				0.21
	타찬				0.20	0.21	
	인정			0.14			
	전가				0.15	0.20	
	누계	0.08	0.05	0.14	0.35	0.41	
이명박	자찬						0.29
	타찬	0.28	0.29	0.12	0.36	0.39	
	인정						
	전가						
	누계	0.28	0.29	0.12	0.36	0.39	

분석의 결과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 사용의 경향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공통점 측면에서 전임 대통령들은 -예외적인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임기 말로 갈수록 언어적 상징을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물론 추세에 있어서 미시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전임대통령들은 재임5년차인 임기 말에 가장 많은 비율의 언어적 상징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마도 정권의 전환기로서 임기 말이 갖는 시기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가령, 정권의 말기는 한 정권의 성과 및 과오를 평가하고, 마무리 짓는 의미가 강할 것이다. 이러한 자체적인 평가와 마무리가 제도적 언어로 치환되어 대통령의 입을 빌어 대중에게 전달되는 시기는 아마도 정권말기가 지배적일 것이다. 또한, 임기 말은 정당정치에 있어서 정권의 재창출을 통한 계속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설에 있어서 제의적·의례적 연설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비난회피나 신망부각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수사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임 대통령들의 언어적 상징사용의 연도별 추이의 일반적인 패턴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 활용이 다른 대통령의 그것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에 직면했던 국가경제위기에서 그 해석을 유추해보았다. 과업환경에 있어서 제도적 위기 혹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외부적인 위기에 대응하여 대통령은 국가구성원에게 공통의 정체성과 역량결집을 위한 하나됨(oneness)의 메시지를 전달해야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다른 대통령과 다른 과업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한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과 다른 패턴의 상징활용 행태를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아보았다. 국가경제위기가 발생한 임기1년 차의 가장 높은 비율의 언어적 상징활용과 그 사용의 지속적인 감소는 이러한 외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의 가치정향이 내부 정치적 관심에 비해 외부적 위기에 대한 극복을 우선순위화한 결과임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부적 위기와 언어적 상징활용 행태의 상관성에 대한 이러한 가설적 판단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아보기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겪었던 제

도적 트라우마와 그 들의 언어적 상징활용의 상관성을 데이터 내부에서 밝혀보았다. 흥미롭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제도적 트라우마가 되었을 임기 2년차의 ‘탄핵소추’ (2004.3.12) 이후 언어적 상징전략의 활용의 비율이 가시적으로 증가(0.05% → 0.14%)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임기 3년차의 ‘천안함 폭침사건’ (2010.3.26) 이후 언어적 상징 활용 비율이 역시 가시적으로 증가(0.12% → 0.36%)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한 가지 일관된 패턴을 암시한다. 즉, 대통령은 주어진 과업환경의 위기와 같은 제도적 변동에 대응하여 언어적 상징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업환경 변동의 함수로써 언어적 상징활용의 행태적 변동이라는 주제는 제도이론적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제도적 이해당사자에게 과업 목표 및 운영의 정당성의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한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 혹은 전략적 대응(strategic responses)이라는 측면에서 조직이론적 연구주제를 구성해왔다. 대통령의 상징전략 측면에서도 이러한 ‘제도변동 → 행위자대응’의 논리적 도식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각각 어떤 언어적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는지의 경향성의 특수성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일관된 상징전략의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초 ‘전기’ 전략경향은 이후 ‘자찬’의 상징전략으로 변동하였고, 이후 고착(lock-on)되었다. 상징전략의 사용측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경향성 측면에서 유사점을 보이는 데, 두 전직 대통령은 임기 중 일관되게 ‘타찬’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타찬’ 전략은 앞서 명명한 ‘제도적 꺾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국내외의 성과에 대한 치하와 그 ‘덕’을 국민과 민간 분야에 돌리는 화법으로 ‘타찬’전략을 일관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다양한 상징전략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임기 초 1~2년에는 주된 전략으로 ‘자찬’ 전략을 구사하던 모습이, 임기 3년차의 체념, 그리고 임기 4~5년차의 ‘전기’ 전략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강한어조의 화법을 구사했던 대통령은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대적으로 완곡한 어조의 화법을 구사했던 대통령은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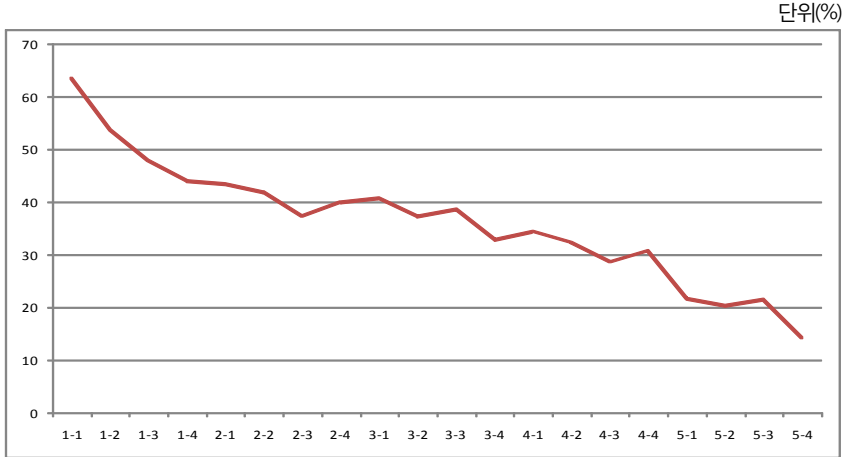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떠한 동인이 이러한 경향성의 변동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발굴과 해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발견 2. 국정수행지지율과 언어적 상징활용의 통계적 상관성

과업환경 변동과 행위자 대응의 논리적 함수에 대한 앞선 발견을 보다 엄밀하게 하기 위하여 테마분석의 주제였던 ‘실책-성과’의 도식 외에 ‘국정수행 지지율’과 같은 외부환경적 도전과 압박이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전략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해보는 것 역시 실익이 있을 것 같다. 특히, 테마분석의 결과 나타난 상징전략들의 유형을 대통령의 임기 중 ‘국정수행 지지율’과 대응하여 그 추이를 비교해보는 것은 대통령 상징관리에 있어서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흔히 제도이론에서 ‘규제적 제도 그 자체’로 개념화되곤 하는 ‘정부’ 역시 제도적 환경 속에서 운영하는 ‘제도적 행위자’ 및 ‘전략적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제도이론의 설명방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갤럽(Gallop)의 2012년 역대대통령 분기별 지지율 변동추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갤럽의 데이터에 따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모두 분기별 지지율은 임기초와 임기말을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하강의 패턴을 보여주었다. 역대 네 명의 대통령 모두가 임기 말에는 레임덕(lame duck)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으며, 그 하강의 추세가 가장 컸던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이해를 위해 역대대통령의 분기별 국정수행 지지율 변동추이의 평균값의 추세를 아래의 그래프에 제시하였다. 자료제시의 명료함을 위해 개별 대통령 지지율 변동추이를 따로 표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평균값이 변동추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래프 1> 14~17대 대통령 분기별 지지율 평균값의 변동추이



출처: 한국갤럽 (2012)

전반적으로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패턴은 초기의 높은 지지율과 이후의 하락, 그리고 중기의 간헐적인 상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갤럽의 국정수행지지율 변동 데이터와 대통령의 연례 연설에 있어서 언어적 상징전략의 비율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도별 3.1절 기념사와 8.15 경축사 내의 언어적 상징전략 사용비율의 합산 값을 지표로 자료를 양적으로 치환하고, 연도별 지지율 변동과 제도적 어휘의 사용 비율 추이간의 상관성을 계량적으로 밝히기 위해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값을 계산하여 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상관값의 계산에 있어서 ‘지지율 연도별 평균값’의 자연로그(natural log) 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지지율 값이 ‘제도적 어휘 비율값’과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5> 연도별 지지율 변동과 제도적 어휘 비율 추이

		취임1년	취임2년	취임3년	취임4년	취임5년	상관계수
김영삼	지지율 연도별 평균 (%)	74	48	32	36	9	r = -.89
	지지율 로그(log) 값	1.87	1.68	1.50	1.56	0.94	
	제도적 어휘 비율 (%)	0.03	0.04	0.05	0.00	0.22	
김대중	지지율의 연도별 평균	63	52	43	29	28	r = +.86
	지지율의 로그(log) 값	1.80	1.72	1.63	1.46	1.44	
	제도적 어휘 비율	0.39	0.14	0.14	0.10	0.00	
노무현	지지율의 연도별 평균	40	27	30	24	24	r = -.73
	지지율의 로그(log) 값	1.60	1.44	1.47	1.38	1.37	
	제도적 어휘 비율	0.08	0.05	0.14	0.35	0.41	
이명박	지지율의 연도별 평균	32	36	46	38	24	r = -.78
	지지율의 로그(log) 값	1.51	1.56	1.66	1.58	1.38	
	제도적 어휘 비율	0.28	0.29	0.12	0.36	0.39	

분석결과 각 대통령의 지지율 연도별 평균(%)과 대통령의 제도적 어휘사용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도를 보인다.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제도적 어휘사용은 강한 음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지율의 변동과 제도적 어휘의 사용비율은 강한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비록 이 분석결과를 제도적 어휘의 사용 행태가 지지율의 변동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성급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제도적 어휘 사용 행태가 외부적 과업환경의 변동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및 해석의 결과에 따른 전략적·의식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으로 추정해 볼 실익이 있다는 생각이다. 피어슨 상관계수 값은 일반적으로 절대값 약 .70 혹은 .85 이상의 높은 통계값을 보여주었다.

종합하면, 대통령이 집권 중 경험하는 다양한 과업환경적 변화와 지지율과 같은 사회적 압력 등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략적인 대응의 한 형태로 언어적 상징전략을 활용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통령의 연례 대국민연설문(3.1절 기념사 + 8.15경축사)에 대한 테마분석(thematic analysis)과 양적내용분석(quantitative contents analysis)을 통해 대통령이 과업환경변화라는 제도적 압력에 어떻게 언어적 상징전략을 동원하여 대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은 제도적 행위자로서 유권자이자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적 어휘(institutional vocabularies)를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직이론이 말하는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테마분석 결과 대통령은 ‘위기’와 ‘기회’라는 상황변동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자찬’, ‘타찬’, ‘인정’, ‘전기’라는 상징적 전략을 언어를 통해 구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더하여, 양적내용분석은 대통령의 제도적 어휘의 사용비율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같은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조직이론적 기여는 다음의 몇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기존 조직이론적 가정은 ‘정부’를 ‘규제적 제도(regulative institution)’ 그 자체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통령 역시 외부적/사회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도적 행위자이며, 이러한 외부적/사회적 압력에 대해 언어적 상징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 혹은 상징관리(symbolic management)의 연구경향은 주로 위기, 재난, 갈등 등 부정적인 외부상황에서 전략적 행위자가 언어적 게임을 통해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책임분할(responsibility allocation) 전략을 획책하는 것을 주된 초점으로 잡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시적인 성과, 기회 등 긍정적인 외부상황에서도 전략적 행위자가 책임분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였다. 소위 ‘제도적 검손’이라고 명명했던 상대에게 ‘덕’을 전가하는 등의 상징적 제스처 들은 이러한 긍정적 책임분할의 예가 될 것 같다. 본 연구는 또 다른 이론적 자원인 대통령 수사(presidential rhetoric) 분야에도 이론적 기여를 하고 있다. 즉, 대통령 수사 연구 분야가 ‘조직

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성을 결여하고 일반적으로 대통령 개인이 국정 철학과 가치에 대한 '해석' 및 '읽기'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대통령의 상징정치가 개인속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맥락의 문제임을 밝힘으로써 대통령 수사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기여를 하고 있다. 대통령 역시 사회적 행위자라는 자각은 기존의 인상관리, 상징관리, 대통령수사 등의 연구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흥미로운 연구주제와 이야기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나 대통령의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상징전략만을 부각함으로써 아젠다 설정자 혹은 방향제시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을 분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생각한 면이 적지 않다.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 자료가 국정운영의 전반에 대한 일반론적인 논의가 아닌, 특정한 기념일의 제의적·의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단위가 되는 유효텍스트의 규모가 제한되는 문제를 아울러가진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제시했던 방법론적 디자인과 제도 이론적 아이디어들은 조직이론적 시각에서 대통령의 상징관리라는 분야에 무궁하고 새로운 연구주제들을 던져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단편이라기보다 도래할 장편의 시론적 성격을 지닌다.

■ 참고문헌

- 가상준. 2005. “대통령지지율과 2004년 대통령선거: 1952-2000년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1), 153-174.
- 강민. 1984. “서평: 구광모 저 대통령론: 지도자의 개성과 유형.” 《국행정학보》 18(1), 351-353.
- 권향원·최도림. 2011.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관한 이해.” 《한국행정학보》 56(1), 275-302.
- 김광웅. 1983. “정치복지론: 대통령 시정연설문 내용분석: 1962-1983.” 《한국정치학회보》 17, 49-79.
- 김경동·이은숙. 1995. 《사회조사연구방법: 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서울: 박영사.
- 김용복. 2008. “동아시아 정세분석: 낮은 지지율, 외교로 돌파하려는 후쿠다 총리.” 《동아시아브리프》 3(3), 26-31.

- 김정해. 2003. “대통령 비서실의 제도화 성격 분석: John Burke 모형에 따른 한국사례의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37(1), 225-248.
- 김현국. 2001. “연설문의 문체연구: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23, 243-297.
- 박기복. 2011. “선거 이슈들의 생존 경쟁 과정과 그것이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3(4), 1105-1127.
- 박성희. 2009. “대통령 취임 연설의 제의적(Epideictic) 특성 수사 분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연설문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195-222.
- 박성희·이윤지. 2011.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제의성과 가치지향: 토마스 제퍼슨에서 버락 오바마까지 11개의 취임 연설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26, 53-81.
- 안순철·가상준. 2006.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통해 본 미국정치의 양극화.” 《세계지역연구논총》 24(3), 143-162.
- 유현중. 2007. “대통령 선거 의제설정과 공약검증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7(0), 1-17.
- 유현중. 2009. “한국 대통령제도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9(0), 1-31.
- 윤건수. 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보》 39(2), 1-22.
- 이미옥·허양숙. 2011. “질적 주제분석 방법을 이용한 중년여성의 운동지속 경험.”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8(2), 156-166.
- 이성로. 2006. “한국 복지레짐의 등장과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 김대중정부의 사례.”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6(0), 1-17.
- 이정복. 2003. “대통령 연설문의 경어법 분석.” 《배달말》 33, 213-237.
- 이창수. 200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비평담화분석 관점에서.” 《담화와 인지》 15(2), 143-161.
- 이창원·전주상. 2004. “한국 행정조직론 분야 실증적 연구결과의 문화방임 및 구속적 경향분석.” 《한국행정학보》 38(2), 245-268.
- 장연수. 2000. “국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부처예산형성에 관한 연구: 문민정부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0(0), 333-363.
- 장연수. 2000.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부처예산형성에 관한 연구-문민정부 농림수산부를 중

- 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59-81.
- 정정길. 2003. “대통령의 권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3(0), 39-46.
- 최평길·백정미. 2005. “대통령과 언론: 대통령과 언론미디어의 관계 실증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4), 389-410.
- 허재용·엄기홍. 2012.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인식: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분석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4(4), 37-56.
- Arias, A. O. 2008. “An interpretive systemic appraisa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learning.” *Systems Research and Behavioral Science*, 25, 361-370.
- Ashforth, B. E. & Gibbs, B. W. 1990. “The double-edge of organizational legitimation.” *Organization Science*, 1(2), 177-194.
- Astley, W. G. & Zammuto, R. F. 1992. “Organization Science, Managers, and Language Games.” *Organization Science*, 3(4), 443-460.
- Benford, R. D. 1997. “An insider's critique of the social movement framing perspective.” *Sociological Inquiry*, 67(4), 409-430.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ampbell, K. K. & Jamieson, K. H. 1990. *Deeds Done in Words: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Genres of Governance*.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hen, J. E. 1995.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Public Agend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1), 87-107.
- Coleman, J. 1998.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 & Herman, E. S. 1998.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Vintage Books USA.
- Cooper, T. L. 2004. “Big Questions in Administrative Ethics: A Need for Focused, Collaborative Effor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4), 395-407.
- Creswell, J. W. & Clark, V. L. P. 2007.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Cronbach, L. J. 1990. *Essentials of psychological testing*. New York: Harper Collins.
- Druckman, J. N. & Holmes, J. W. 2004. “Does Presidential Rhetoric Matter? Priming and Presidential Approval.”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4(4), 755-778.
- Edelman, L. B. 1992. “Legal ambiguity and symbolic structures: Organizational mediation of

- civil rights law.”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 1531-1576.
- Edelman, M. 1971. *Politics as Symbolic Action: Mass Arousal and Quiescence*. Chicago: Markham Publishing Company.
- Elder, C. D. & Cobb, R. W. 1983. *The Political Uses of Symbols*. New York & London: Longman.
- Elsbach, K. D. 1994. “Managing organizational legitimacy in the California cattle industry: The construction and effectiveness of verbal accoun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9(1), 57-88.
- Elsbach, K. D. & Sutton, R. I. 1992. “Acquiring organizational legitimacy through illegitimate actions: A marriage of institutional and impression management theori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5(4), 699-738.
- Emrich, C. G., Brower, H. H., Feldman, J. M., & Garland, H. 2001. “Images in words: Presidential rhetoric, charisma, and great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6(3), 527-557.
- Fiss, P. C. & Zajac, E. J. 2006. “The symbolic management of strategic change: Sensegiving via framing and decoupling.”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9(6), 1173-1193.
- Freeman, R. E. 1984.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Boston: Pitman.
- Frumkin, P. & Galaskiewicz, J. 2004.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Public Sector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4(3), 283-307.
- Gioia, D. A. & Thomas, J. B. 1996. “Identity, image, and issue interpretation: Sense-making during strategic change in academia.”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1, 370-403.
- Gioia, D. A., Thomas, J. B., Clark, S. M., & Chittipeddi, K. 1994. “Symbolism and Strategic Change in Academia: The Dynamics of Sensemaking and Influence.” *Organization Science*, 5(3), 363-383.
- Herman, E. S. & Chomsky, N. 2002.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New York: Pantheon Books.
- Holton, J. A. 2007. “The Coding Process and Its Challenge.” In A. Bryant & K. Charmaz (Eds.), *The Sage Handbook of Grounded Theory* (pp. 265-290).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Jost, J. T. 1995. “Negative Illusions: Conceptual Clarification and Psychological Evidence Concerning False Consciousness.” *Political Psychology*, 16(2), 397-424.
- Lounsbury, M. 2007. “A tale of two cities: Competing logics and practice variation in the

- professionalizing of mutual fund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0(2), 289-307.
- Lim, E. T. 2002. “Five Trends in Presidential Rhetoric: An Analysis of Rhetoric from George Washington to Bill Clint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2(2), 328-348.
- Ocasio, W. 1997. “Towards an Attention-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 187-206.
- Oliver, C. 1991. “Strategic responses to institutional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1), 145-179.
- Reichertz, J. 2007. “Abduction: The Logic of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In A. Bryant & K. Charmaz (Eds.), *The Sage Handbook of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The Sage Publications.
- Schlenker, B. R. 1980. *Impression Management: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Scott, W. R. 2008.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deas and Interests -3r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Scott, W. R. & Alford, R. R. 1991. “The Organization of Soceital Sectors: Propositions and Early Evidence.” In W. W. Powell & P. J. DiMaggio (Eds.),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pp. Ch.5, p. 108-14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ffy, B. D. & Grimes, A. J. 1986. “A Critical Theory of Organization Scie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2), 322-336.
- Stone, W. F. & Schaffner, P. E. 1988. Chapter 8. Public Opinion and the media *The Psychology of Politics -Second Edition* (pp. 188-216). New York: Springer-Verlag.
- Suchman, M. C. 1995. “Managing Legitimacy: Strategic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571-610.
- Suddaby, R. & Greenwood, R. 2005. “Rhetorical strategies of legitimac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0(1), 35-67.
- Tucker, L. R. 1998. “The framing of Calvin Klein: A frame analysis of media discourse about the August 1995 Calvin Klein Jeans advertising campaign.”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5(2), 141-157.
- Weick, K. E. 1993. “The collapse of sensemaking in organizations: The Mann Gulch disaste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4), 628-652.